

##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산문 연구:

카르토그래피로서의 수기, 편지, 수필과 글쓰기 전략

나 보 령\*

### 차 례

1. 서론
2. 증언 불능을 증언한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
3. 박탈된 문단 성원권 회복 욕망을 표출한 편지
4. 사회적 고립과 수감 트라우마를 기록한 수필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글쓰기를 '부역 여성작가'로서의 사회적, 문단적 위치 및 그와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의 '카르토그래피'를 드러낸 시도로서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집들 및 연구에서 불철저하게 다루어져왔던 수기, 편지, 수필을 포괄하는 노천명의 산문을 연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노천명이 여러 문학 장르를 활용해가며, 자신이 처해있었던 문단 안팎에서의 억압과 배제의 상황을 드러내려 했던 측면을 부각하는 한편, 그 장르별 글쓰기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초빙부교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반공주의, 가부장제, 문단문학 제도가 지배적인 전후 한국문학에서 주목 받지 못한 부역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과 서사를 가시화했으며, 그 점에서 노천명 문학의 의의를 재평가하였다.

주제어: 노천명, 한국전쟁, 부역작가, 전쟁 수기, 피난수도 부산, 피난지 대구, 최정희, 별을 쳐다보며, 나의 생활백서, 여성서간문독본.

## 1. 서론

노천명은 한국전쟁기 부역작가 문제를 다룰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름이 알려진 문화인 중에서는 드물게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전쟁부역자 처벌 열풍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던 시기에 많은 문화예술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노천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고초를 치른 축에 속한다.

다행히 1951년 삼일절 특사로 출감한 그는 1957년 타계하기 전까지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이 시기 노천명 문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빈약한 편이다. 일단, 거의 모든 연구들이 시집 『별을 쳐다보며』(희망출판사, 1953.3)에 편중되어 있다. 시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산문이 남아있지만,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별을 쳐다보며』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전쟁과 수감 체험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산호림』(천명사, 1938.1), 『창변』(매일신보출판부, 1945.2)에 비해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sup>1)</sup> 또한 그중에서도 이른바 ‘애국적’ 성격을 표방하는 시들을 아시아·태평양전쟁 기

1) 대표적으로 손미영, 「노천명 시 연구: 시집 『별을 쳐다보며』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6, 돈암어문학회, 1994, 164쪽; 김용희, 「노천명 시의 의미구조: 시집 『별을 쳐다보며』와 『사슴의 노래』를 중심으로」, 『교육논총』10,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296쪽.

간 노천명이 발표했던 친일 시와 연관 짓거나,<sup>2)</sup> 모운숙 등의 다른 여성 시인들의 전쟁 시와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sup>3)</sup>

한 때 일부 논의들이 노천명의 초기 작품세계의 서정시적 면모만을 부각하였던 것과 달리, 이 연구들은 일제 말기의 친일 행적과 한국전쟁기 부역 이력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노천명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을 비판하거나, 개인적 기질 내지 “인텔리 신여성의 허영심”, “바람기”<sup>4)</sup> 같은 측면을 문제 삼는 데 논의가 그치고 만 점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기저에 스며있는 여성 혐오도 문제거니와, 냉전기 이른바 부역자라는 낙인 아래 가해졌던 제도적 폭력을 간과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노천명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단죄로 정당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최근 역사학 분야에서 발표된, 한국전쟁기 노천명을 비롯한 부역문화인에 대한 군법회의 판례를 분석한 김윤경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는 개인적인 회고록이나, 신문기사 위주의 제한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스캔들처럼 다루어져왔던 부역문화인 심사 및 처벌 과정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판결 자료를 입수해 실증적으로 논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범리상의 문제점과 법적 폭력의 실체는 한국전쟁기

2) 신경림, 「노천명의 문학과 인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은: 노천명 시와 생애』, 지문사, 1981, 316, 324-326쪽; 김삼주, 「노천명의 문학적 초상」,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250쪽; 광효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 애국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12-2, 한국근대문학회, 2011, 18쪽.

3) 김진희, 「모운숙과 노천명 시에 나타난 ‘해방’과 ‘전쟁」, 『한국시학연구』28, 한국시학회, 2010, 285-286쪽; 구명숙, 「한국전쟁기 노천명과 모운숙의 전쟁시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7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64쪽; 이경수, 「한국전쟁기 여성 시에 나타난 사랑과 죄의식의 감정 구조」, 『상허학보』55, 상허학회, 2019, 157-158쪽.

4) 신경림, 위의 글, 316쪽. 신경림, 김윤식 등 초기 연구사에서 노천명의 친일, 부역 이력을 논할 때 여성혐오적 시각은 특히 두드러진다. 문제는 이 논의들이 후대의 연구들에서도 인용되며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윤식, 「예술의 방법론과 개인의 기질」, 『문학사상』, 1975.5)

노천명의 텍스트 전반을 그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억압의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5)</sup>

일례로, 『별을 쳐다보며』의 발문에는 “옥중에서 나에게 시를 쓰는 일을 하게 해 주었던 부산형무소 간수장 유증열 씨 및 한은동 씨의 후의에 감사”<sup>6)</sup>하다는 인사말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수감된 상태에서 간수의 ‘후의’에 기대어 쓰였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잔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가까스로 출감한 처지에서 시집을 출판한 노천명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검열제도까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노천명을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전쟁과 이념 대립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존재라고 선불리 재규정하는 방식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는 김윤경의 연구가 내세운 희생양 담론 이상을 읽어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노천명이 여러 문학 장르를 활용해가며 자신이 처해있는 억압과 배제의 조건을 드러내고자 시도했던 적극적인 면모를 조명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은 기존에 자주 논의되었던 시 대신, 수기, 편지, 수필을 포괄하는 한국전쟁기 노천명의 산문을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텍스트들은 지금껏 부차적, 보조적 자료로 취급되며 연구사에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전시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노천명이 처해있던 특수한 글쓰기의 조건과 그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은 비단 시뿐 아니라, 그가 남긴 다양한 텍스트

5)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노천명, 조경희, 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5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74-275쪽. 이 논문에 제시된 노천명의 ‘범죄사실기록 전문’은 사실상 범죄나 부역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내용들이며, 이를 근거로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판결하였다는 당시 현실의 부조리함을 확인시켜준다.

6) 노천명, 「책끝에」, 『별을 쳐다보며』, 희망출판사, 1953.3, 129쪽.

곳곳에 편재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한 『별을 쳐다보며』의 발문 같은 파라텍스트에서도 확인되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시기 그의 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르별 글쓰기 전략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첫째, 노천명이 북한군 점령기 체험에 관해 증언한 수기를 재고할 것이다. 이 때 정치적 억압과 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장르라는 점을 고려해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는가의 문제 못지않게 무엇을 증언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다루어진 적 없는 노천명의 편지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던 그가 대구의 중군작가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들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기와 상반되는 내밀한 글쓰기임에도, 오히려 이를 활용해 공적인 메시지를 발화하는 측면을 논할 것이다.

셋째, 수필집 『나의 생활백서』(대조사, 1954.7)를 연구 대상으로 다룰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피난살이와 방송국 생활 등의 쇠쇄한 신변잡기에 관해 기술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글들을 전시의 수감 체험으로 인한 노천명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관한 기록들로 재접근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부역의 이력을 지우고,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되려는 욕망의 발로로 논의되어왔던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글쓰기를 ‘부역 여성작가’로서 자신이 처해있던 사회적, 문단적 위치 및 그와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의 ‘카르토그래피(cartography)’<sup>7)</sup>를 가시화하고자 한 실천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7) 카르토그래피는 주체의 정치적, 사회적, 상징적 위치를 정의하는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말한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이를 금지하고 제약하는 부정적 권력(potestas)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에 맞서는 저항의 자리와 전략을 식별할 수 있는 긍정적 권력(potentia)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15-17쪽.

## 2. 증언 불능을 증언한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노천명은 누하동 225-1번지에서 식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가족으로 언니와 조카딸들이 안국동에 있었는데, 집 안에 남자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여자들끼리만 피난을 떠나기는 어려웠을 터이다.<sup>8)</sup> 이 시기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겪은 일들에 관해 노천명이 남긴 글 가운데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오산이었다」와 「문화인 우대도 헛선전」이 있다. 둘 다 ‘적치 하’에서 겪은 수난과 핍박을 증언하는 반공주의적 목적성을 띤 수기에 해당한다.

주지하듯, 잔류파 또는 부역자로 몰려 정치적으로 박해 받았던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전시에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 쓰기 기획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매 순간 강력한 반공주의의 검열이 작동하는 수기 장르의 글쓰기 규약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규약과 은밀하게 경합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억압적인 글쓰기의 조건과 권력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던 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흔적들은, 정주아의 월남작가 수기 연구에서 확인되듯, 간접적으로 암시될 따름이다.<sup>9)</sup>

그렇다면, 문면에 드러난 요소뿐 아니라, 해당 수기로부터 무엇을 삭제하고 은폐하는가라는 선택 자체도 억압적인 글쓰기의 조건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논의될 수 있다. 바로 그 점에서 봤을 때, 노천명이

8)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았던 때를 회상하는 수필에서 노천명은 이웃 여성들은 전부 남편들의 주도로 소개를 하는데, 혼자인 자신은 집을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언급한 적이 있다(“집이 헐리면 나는 정말 어디로 피난을 가나—난감하다. 모두들 남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들만 가면 될 다행한 여인네들 틈에서 나는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다.”). 한국전쟁 때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노천명, 「집 얘기」, 『나의 생활백서』, 대조사, 1954.7, 178쪽.

9) 정주아,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20쪽.

남긴 두 편의 수기에서도 “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의 장”<sup>10)</sup>이었다는 지적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측면이 부상한다.

먼저, 「오산이었다」부터 살펴보자. 이 글은 노천명의 한국전쟁 체험과 글쓰기를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어 왔는데, 서지 정보부터 불분명한 점이 많아 기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 출처 문제이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이 글의 가장 이른, 정확한 출처는 노천명 사후에 출판된 산문집 『사슴과 고독의 대화』(서문당, 1973)이다.<sup>11)</sup> 이 책에는 노천명 생전에 출판된 수필집에 실렸던 글도 있고,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원고를 추려 새로 실은 글도 있다. 「오산이었다」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원 출처 정보 없이 수록되었다.

이후 「새 조사에 의한 노천명 작품연보」(문학사상, 1975.5)에서 처음으로 ‘조선일보, 52’라는 출처가 제시되었다.<sup>12)</sup> 이 때 작품연보를 작성한 문학사상 자료조사연구실이 조선일보에서 이 글을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만약 그러했다면 노천명의 다른 글들처럼 정확한 게재 일자를 제시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후로 출간된 모든 노천명 전집들은 이 글의 출처를 ‘조선일보, 1952’로 제시하고 있다.<sup>13)</sup>

10)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94쪽.

11) 『사슴과 고독의 대화』를 비롯해 몇몇 판본에는 「오산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실렸으나, 본문에 “오산이었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이는 활자화 과정의 오류로 판단된다. 한편, 이 책에 앞서 박옥화, 「한국여류시인론: 노천명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6, 40쪽에서도 이 글이 인용되었는데, 참고문헌에서 출처 정보를 밝히지 않아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원고를 참조한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12) 문학사상 자료조사연구실 편, 「새 조사에 의한 노천명 작품연보」, 『문학사상』, 1975.5, 342쪽.

13) 이희경은 『노천명시전집』(천명사, 1960)에 초판본과 개작본이 섞여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행 배열이 많음에도, 김윤식·김현자·김옥순 편, 『노천명전집』(솔출판사, 1997)에서 이 같은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비슷하게 김재용은 『창변』(매일신보출판부, 1945.2)의 경우, 친일 시편들을 수록한 해방 이전의 판본과 해당 시편들을 삭제한 해방 이후의 판본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기존 전집들에서 후자를 실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희경, 「노천명 시의 개작과

조사 결과, 조선일보 아카이브인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과 한국전쟁기에 발행된 조선일보만을 따로 영인한 『6·25 전쟁기간 4대신문: 조선일보』(LG상남언론재단, 2009)에서는 모두 이 글이 발견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전시 신문에 낙장과 훼손된 부분이 많아 찾지 못했을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지면에 실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연현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그때 내가 관계하고 있던 『문예』가 아닌 다른 어떤 잡지”라는 단서는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 조연현은 노천명이 부산에서 그의 권유와 주관 하에 그가 관여하는 한 잡지에 글을 실었다고 했다. “간단한 자신의 심경을 쓴 수필”이었고, 노천명이 출감 후 처음으로 발표한, “문단생활에서의 재기의 신호” 격에 해당하는 글이었다는 설명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말한 문제의 글은 「오산이었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관계하고 있던 『문예』 아닌 다른 어떤 잡지에 그가 글을 쓸 것을 권유했다. 이 권유는 그 당시의 정세로 봐서는 상당한 용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것은 6·25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당시에 있어서 일반민중이나 문단인의 감정이 소위 부역문인으로서 중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나는 그의 문단재기를 도우는 의미에서도 그의 집필을 권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여사는 자꾸만 주저했다. 그 주저한 이유는 주로 그당시의 전기한 바와같은 사회정세에 있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노여사는 원고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것은 간단한 자신의 심경을 쓴 수필이었다. 게재 여부를 판단을 나에게 일임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발표했다. 이것이 노여사의 문단생활에서의 재기의 신호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정: 결정본 확정을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어문학』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544쪽; 김재용, 「찢겨진 시집과 친일 흔적 지우기: 두 가지의 노천명 시집 『창변』, 『근대서지』12, 근대서지학회, 2015, 233쪽). 최근에 나온 민윤기 편, 『노천명 전집 종결판』(스타북스, 2020)의 경우, 새롭게 발굴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기는 했지만, 「오산이었다」처럼 여전히 이전 전집들에 수록된 판본이 그대로 수록된 경우가 눈에 띈다. 추후 노천명의 텍스트 전반에 대한 원전 연구가 필요하다.



인해 노여사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노여사의 글이 발표되자 문단 일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4)</sup>

다만, 전시에 부산에서 조연현이 관여하였던 『문예』가 아닌 잡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찾지 못해 그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까닭에, 현재 전하는 글이 전문인지도 알 수 없다. 내용상 더 이어지는 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글의 원 출처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조선일보 외에 조연현이 관여하였던 잡지와 관련해 후속 조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장르 문제이다. 현재 모든 전집과 선행연구에서는 이 글을 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윤식·김현자·김옥순 편, 『노천명 전집』2(술출판사, 1997)에서는 “이 작품은 체험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으나 장르 구분이 모호하여 ‘소설’로 분류해 실었다”<sup>15)</sup>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글은 한국전쟁기에 집중적으로 쓰인 전형적인 수기의 성격을 띠는 만큼 소설보다 수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 쓰기 기획에 동원되었던 많은 문화예술인처럼 노천명도 전후에 개인적인 작품집을 내는 과정에서는 이 글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 출처를 찾는 것 역시 어려워졌으리라 추정된다.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오산이었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쓰기 전략은 작가 노천명이 아닌, 일개 여성의 위치에서 겪었던 사적인 수난과 내면 심리를 부각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 글의 곳곳에는 어린 식모와 단 둘이 사는 집에 수시로 총을 멘 군인, 빨치산, 보위부 정보원 남성들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안감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들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체감한 공포,

14)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138쪽.

15) 김윤식·김현자·김옥순 편, 『노천명전집』2, 술출판사, 1997, 450쪽.

그리고 이화여전 동기였던 모운숙, 김수임 사건과 연루되어 정체모를 수사기관에서 폭력적으로 취조 당했던 일화들이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노천명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조선문학가동맹(이후 문맹)에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즉, 자신에게 문맹이란 공산주의 이념이나, 작가로서의 대외적 활동과 무관하게 “동지들”인 “대한민국의 문인들” 틈에서 고독과 두려움을 달래고, 심정적으로 의지했던 사적인 장소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그의 진술은 그와 절친했던 최정희의 기록을 참고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그동안 최정희의 한국전쟁 체험에 관한 일련의 글들은 주로 남편 김동환 및 최정희 자신의 부역 이력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이 글들에는 노천명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등장하고, 무엇보다 해당 증언이 글마다 미묘하게 달라져 주목을 요한다.

구체적으로 「속 수난의 장」(새벽, 1955.1)에는 ‘반가운 얼굴’로 지칭되는, 오랜 우정을 나눈 것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문맹에서 자신을 냉대하였던 일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나타나있다.<sup>17)</sup> 이 일화는 전시에 쓰였던 「난중일기에서」(오제도 편,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4)에는 없다가 전후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같은 일화는 노천명이 죽은 뒤, 다시 쓰인 「탄금의 서」(『찬란한 대낮』, 문학과지성사, 1976)에서 지칭을 N으로 바꾸어 훨씬 상세하게 서술된다.<sup>18)</sup> 이 판본에서는 이전에는 머리글자로 지칭되었던 인물들이 전부 실명으로 바뀌는데, 이 인물만 N으로 지칭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서술된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그가 노천명임을 명백하다. 그에 따르면, 김동환의 행방을 추궁하는 보위부의 취조를 피하기 위해 문맹에 나

16) 노천명, 「오산이었다」, 『사슴과 고독의 대화』, 서문당, 1973, 350쪽.

17) 최정희, 「속 수난의 장」, 『새벽』, 1955.1, 125-127쪽.

18) 추정건대, 최정희는 「난중일기에서」를 썼던 전시에는 노천명이 수감 중이었던 만큼 이 일에 대해 침묵하였다가, 전후에 당시 증언하지 못했던 일화를 추가하고, 그가 죽은 뒤에 비로소 가장 상세하게 다시 썼던 것으로 보인다.

가기 시작한 최정희는 1950년 7월 3일 그곳에서 N을 만난다. 그런데 그는 전쟁 전과 달리 최정희에게 확연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홍 존 땀 만났다구 배암같이 짝 돌아서 오는구나”

반가운 얼굴은 이렇게 종알거리며 비시시웃는 내 얼굴을 털어 버리고 저쪽으로 돌아 앉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 자리에 선채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 비시시 웃던 입을 움추릴 사이도 없이—

—내가 무얼 했길래 29년 가까이 친했던 친구에게까지 버림을 받는걸까? 친하던 벗이 나를 그렇게 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까지 덩다라 차거운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 내가 살인이라도 한것이라고 아나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것처럼 냉혹한 시선을 보낼 수가 있을까. (중략) 동맹에 가던 날 “배암같이 짝 돌아서 왔다”고 털어 버리던 친구는 매일 똑같은 그런 얼굴로 대했다. 동맹회관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내게 차겨웁더라도 이 한 사람의 가깝던 친구가 내게 전과같이 따사롭고 살뜰하다면 나는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을것 같았다. 참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날 나는 친구에게 나를 박대하는 이유를 물으려고 했다.

“민족의 거대한 역사가 벌어졌는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따지기냐?”고 물으려고 하는 내 말이 떨어도 지기 전에 친구는 또 이렇게 나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sup>19)</sup>

최정희의 글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노천명에게 문맹이 그가 부각했던 사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장소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오산이었다」가 북한군 점령기 노천명의 실제 행적과 심리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글쓰기의 장이었다는 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인용한, 노천명이 「오산이었다」를 쓴 배경에 관한 서술로 추정되는 조연현의 회고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연현은 “소위 부역문인으로서 중형을 받은 사람”인 노천명을 향해 당시 문단 안팎의 감정이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사실, 그에 따라 간단한 심경을 담은 수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천명의 글이 발표되자 “상당히

19) 최정희, 「탄금의 서」, 『찬란한 대낮』, 문학과학사, 1976, 253-255쪽.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노천명의 글을 잡지에 싣도록 주선한 조연현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정도였으니, 당사자에게는 훨씬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기에 노천명이 극도로 억압적, 구속적인 글쓰기의 조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노천명이 북한군 점령기 체험에 대해 제대로 된 증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그는 「오산이었다」에서 자신의 실제 체험을 은폐하는 대신, 개인적인 수난을 부각하고, 대한민국 문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이 글에서 그가 과거 문맹에서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 고백과도 닮아 있다.

내가 끌려 갔었다는 사실을 이때에 누가 아는 것은 재미가 적다. 되도록이면 반동으로 몰리지 않는 척해야만 된다. 자꾸 반동으로 주목을 받는 눈치만 있고 보면 벌써 사람들의 기색은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붙여서 하는 판이다.<sup>20)</sup>

동일한 양상은 「문화인우대도 헛선전」에서도 반복된다. 이 글은 기존의 노천명 선집이나 전집에는 실린 적이 없는 수기로, 부역자 심사와 처벌 과정에서 악명을 떨쳤던 오제도 사상 검사가 편찬한 『자유를 위하여』(문예서림, 1951.10)에 수록되었다. 이 책은 잔류파·월남 문화인의 북한 정권 체험 수기를 모은 책으로, 같은 해 오제도가 펴낸 『적화삼삭구인집』과 유사한 반공 기획서이다. 출판 시기상 노천명은 부산형무소에서 석방되자마자 집필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군 점령기 문맹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증언하며, 북한의 문화인 정책을 비판하는 논설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 글에는 당시 노천명이 처해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오산이었다」에서의

20) 노천명, 위의 글, 359쪽.

고백처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들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으로, 문맹에서 북한군의 종군작가가 되어 서울에 온 이태준, 안 회남, 김사랑 등과 만났을 때 이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을 깨닫고 낙망했던 대목이라든지(“아차, 자이들이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구나—”<sup>21)</sup>), 당원인 문인들조차 변절자로 낙인찍히고 처벌받는 일을 목도하면서 공포를 느꼈던 대목을 들 수 있다. 이 일화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정권 하에서 문화인이 얼마나 부자유하고 취약한 처지에 있었는지 증언하고, 그와 대조되는 대한민국 문화인의 자유와 위상을 선전하는 것처럼 읽힌다.

멧세에지와 호소문으로 가득찬 신문이라기 보다는 선전 뼈라 같은 신문을 들고 앉아 나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리운지 몰랐다.

이럴때 마다 신문을 무릎우에 놓고 말없이 나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권의 책을 엮으면 마음대로 출판을 할수가 있고 시를 쓰면 신문에나 잡지에다 마음대로 발표할 수가 있는 자유의 나라가 그리웠다.

웬 검열기관은 그렇게 여러 골이며 또 자기네 정책을 찬양하는것이 아니면 그것은 작품 축에도 못가는 것이며 물론 그런 작품을 위해서는 지면을 허락해주지 않았다.<sup>22)</sup>

그러나 실상 이 글을 쓰고 있는 노천명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변절’한 부역자로 몰려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가까스로 출감한 처지라는 점, 또한 사상 검사가 기획한 글쓰기의 장에서 반공주의의 검열을 거친 목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위의 서술은 표면과는 다른 효과를 내는 것처럼 읽힌다.

다시 말해 북한군 점령기에 체험한 정치적 검열과 폭력을 증언하는

21) 노천명, 「문화인우대도 헛생색」, 오제도 편, 『자유를 위하여』, 문예서림, 1951. 10, 125쪽.

22) 노천명, 위의 글, 127-128쪽.

한편에서, 통치 주체만 교체되었을 뿐 현재에도 지속되는 노천명 자신을 비롯한 전시 문화인에 대한 검열과 자유로운 증언이 불가능한 처지를 은유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sup>23)</sup> ‘문화인우대도 헛선전’이라는 글의 제목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군 점령기 체험에 관해 노천명이 남긴 두 편의 수기는 선명한 표면의 메시지와 달리, 불투명한 공백과 이면이 많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글들은 반공주의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그와 공모한 글쓰기 이상으로 읽히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글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증언이 불가능한 장이었는지, 즉 당시 노천명을 둘러싼 억압적인 글쓰기의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는가의 문제 못지않게 무엇을 증언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할 때, 이 글들은 단순히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하였던 부역 이력을 변호하거나,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텍스트를 넘어, 남한에서 노천명이 처해있던 억압적인 증언 불능의 상황을 간접적, 은유적으로 증언하는 텍스트로서 재해석해볼 수 있다.

### 3. 박탈된 문단 성원권 회복 욕망을 표출한 편지

이 장에서는 수기와 같은 시기에 쓰였음에도, 전자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서 노천명이 남긴 편지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때 편지는 여느 문학작품과 달리 외부로의 공개를 전제하고 쓴 글이 아닌 까닭에, 다른 텍스트들과 같은 층위에 놓고 분석

23) 노천명은 서울 수복 후 부역자로 수감된 체험을 담은 시에서도 “붉은군대의 총뿌리를 받아/대한민국의 총뿌리를 받아/셋빳가니 뒤집어쓰고/감옥에까지 들어왔다/어처구니 없어라 이는 꿈 일 게다/진정 꿈 일게다”라며 남과 북에서 자신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토로한 바 있다. 노천명, 「누가 알아 주는 투사냐」, 『별을 쳐다보며』, 희망사, 1953.3, 63쪽.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편지에 대해 노천명이 지니고 있었던 남다른 장르 인식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해방기에 출간한 『여성서간문독본』(박문출판사, 1949)에서 노천명은 남성에 비해 대외적으로 표현의 기회가 드문 여성에게 편지가 중요한 글쓰기의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sup>24)</sup> 나아가 이 책에서 그는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과 주고받은 실제 편지들을 인용하면서, 사적인 글쓰기와 공적인 글쓰기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유사하게 해방 이전부터 여러 잡지에서 여성작가들의 편지를 실는 일은 종종 있었다. 처음부터 공개편지 형식으로 원고를 청탁한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편지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여성』지의 기자였던 노천명이 최정희에게 자신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잡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편지들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말이다.<sup>25)</sup> 이로부터 노천명을 위시한 여성작가들에게 편지가 단순히 한 사람의 수신자(독자)를 상정한 사적인 글쓰기로서만 인식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손유경은 최정희 주변의 여성작가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고 청탁이나 지면 확보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양상을 살펴 보면서, “여성이 예술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을 흥미롭게 분석한 바 있다.<sup>26)</sup> 손유경이 이들의 교류를 “쇄쇄한 개인사”(390)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듯, 그 교류의 물적 실체였던 편지 역시 사적인 소통 수단을 넘어, 공적인 글쓰기와 맞닿아 있었던 영역으로서 의미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들뢰즈와 가타리가 카프카가 남긴 수많은 편지 텍스트들을 다수적 문학, 기성의 문학 양식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욕망을

24) 노천명, 『여성서간문독본』, 박문출판사, 1949[1955], 15, 17쪽.

25) 김영식 편, 『작고문인 48인의 육필 서한집』, 민연, 2001, 172쪽.

26) 손유경, 「'여류'의 교류」,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393쪽.

담고 있는 ‘소수적 장르’로 분석한 작업 역시 이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7)</sup> 노천명의 편지 또한 부역 여성작가로서 당대의 공적인 문학장에서 말할 수 없었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수적 장르로 접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지면 자체가 극도로 축소되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처럼 강력한 검열을 의식해야 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노천명에게 편지는 남다른 위상을 지닌 매체가 되었다.<sup>28)</sup> 따라서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글쓰기를 논할 때 그가 남긴 편지들은, 보조적 자료가 아닌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반드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노천명이 사적 글쓰기와 공적 글쓰기의 경계를 오가며 자신의 욕망과 목소리를 표출하였던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김영식이 펴낸 『작고문인 48인의 유품 서한집』(민연, 2001)이다. 이 책은 김동환과 최정희가 소장해오던 편지들을 영인해 활자화한 자료집으로, 노천명이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 23통이 수록되어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전쟁은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정희는 카프 사건으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노천명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던 적도 있고,<sup>29)</sup> 그를 위해 진정서를 써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회장이었던 박종화를 찾아가는 등 석방운동에도 힘썼던 인물이다.<sup>30)</sup> 따라서

27)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72-78쪽.

28) 편지와 관련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노천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이었던 시인 김광섭에게 거듭해서 석방운동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덕에 삼일절 특사로 풀려날 수 있었다는 일화 역시 유명하다. 김광섭, 「시인 천명과의 교우와 회상」, 『자유문학』, 1958.7, 48-49쪽.

29) 최정희, 「처음 밝히는 나의 과거」, 『한국대표작가수기전집』, 평화문화사, 1968, 337-338쪽.

30) 김지향, 「사슴의 고독, 그 허상과 실상」, 『시문학』, 1973.10, 85쪽.



노천명은 최정희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는 앞선 수기 양식을 통해서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서한집에 수록된 편지들은 해방 이전의 것부터 장기간에 분포되어있는 데다, 편지 상에는 연도가 생략된 채 월일만 기입되어있어 한국전쟁기에 쓰인 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이 논문에서 일차적인 판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봉투 상의 주소이다. 주소지가 노천명이 출감 후 피난살이를 했던 부산이나, 최정희가 피난했던 대구인 경우, 전시에 쓰인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다만 편지를 보관하거나, 서한집을 내는 과정에서 봉투와 편지가 잘못 짝지어진 경우도 있어 봉투 상의 주소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편지의 종류를 추가적인 단서로 삼았다. 해방 이전에 쓴 편지에서 노천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조선일보사나, 매일신보사의 기관명이 인쇄된 봉투, 그리고 ‘주식회사조선일보사’ 또는 ‘조선일보사출판부원고용지’라는 활자가 인쇄된 원고지 내지 세로줄 용지를 사용하였다. 여행지에서 보낸 엽서의 경우 ‘郵便はがき[우편엽서]’라는 활자가 인쇄된 엽서 용지를 사용하였다. 반면, 해방기에 보낸 엽서는 ‘해방조선 기념엽서’ 우표가 인쇄된 엽서 용지를 사용하였다. 한국전쟁기에 쓰인 편지의 경우 형무소에서 출감한 뒤 입사한 중앙방송국 공보처에서 제작한 ‘공보처방송국원고지’라는 활자가 인쇄된 원고지 또는 그냥 백지를, 봉투의 경우 기관명이 없는 일반 봉투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실제로는 훨씬 많았겠지만, 한국전쟁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노천명의 편지는 5통으로 추려진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서한집에 20번째로 수록된 5월 30일<sup>31)</sup>자의 편지부터 살펴보자. 봉투에 적힌 발신지는 부산시 동대신동이며, 수신인은 “대구부내 평화일보사 장덕조

31) 서한집에는 편지를 쓴 날짜가 ‘五月三日’로 옮겨져 있는데, 첨부된 편지 이미지 상의 손 글씨는 ‘五月卅日’이므로 30일로 수정되어야 한다. 김영식 편, 위의 책, 177쪽.

씨 전교(轉交) 최정희 여사”이다. 내용을 미루어 1951년 노천명이 부산 형무소에서 출감한 직후 보낸 편지로 보인다. 또한 편지지가 공보처방송국원고지인 것을 보아 중앙방송국에 발령을 받고 난 뒤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희—

정희! 잘있었오! 그동안 여러가지로 감사했오. 벌써부터 편지를 쓴다는 것이 여러가지 기막힌 사정들이 있어 이렇게 늦었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수없는 내마음이요. 나는 당장에 당신을 가서 만나야 하겠오. 그래서 우리 붓들고 실컨 울어야만 하겠오. 내가 징역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구려. 천명이가 아닌 다른 돼지 같은 동물이 하고 나왔을게요.

정희— 나는 당신이 그렇게 보구싶구려. 연인 이상으로 나는 당신이 그림소. 아무도 보구싶지 않고 아무데도 가고싶은곳이 없오, 당신이 있는 데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대구」가 가구싶구려.

차편을 찾았으나 외부와 연락이 잘안되는 나는 언지를 못했오. 내게도 일찌기 이만돈은 있었건만— 단돈 백엔을나는 지금 내가방속에 갖고 있지를 못한다우. 「いそろう」의 신세. 거기다 사둔집이 되고 보니 바늘방석에 가얏고 있오. 아무의 소식도 듯구싶지가 않고 오직 당신이 맞나고 싶소. 다만 하루라도 좋으니 당신 부산엘 좀 왔다 가지 못하겠오? 덕조랑 한번들 오구려. 장덕조도 보구 싶소, 그럼 늘 건강히 또 은혜가온대 있기바라며.

5월 30일 천명.<sup>32)</sup>

자신의 출감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에서 노천명은 “내가 징역을 하고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구려.”라는 문장에 찍힌 방점에서 드러나듯, 징역을 살았던 일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형무소에서 의 시간에 대해 일체 침묵하는 그는 그때의 자신을 “천명이가 아닌 다른 돼지 같은 동물”로 치부할 뿐이다. 전쟁 이전의 시나 편지에서 스스

32) 김영식 편, 위의 책, 177쪽.

로를 종종 ‘사슴’에 빗댄 것을 상기할 때, 징역 체험에 대한 강한 부정과 굴욕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편지에서 좀 더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형무소에서 나온 현재의 상황이다. 당장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그는 사돈집<sup>33)</sup>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전시에 부역죄로 징역살이를 했던 처지에 그곳에서 “「いそうろう」[식객]의 신세”로 몸을 의탁해야 했던 노천명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다는 서술에서 드러나듯, 부자유한 신세가 옥안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최정희가 있는 대구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차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에서 오는 절망감이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은 부산 피난 시절 내내 지속된다. 서한집에 18번째로 수록된 10월 16일자 편지는 봉투의 발신지가 “부산시 대청동 1가7”로 바뀐다.<sup>34)</sup> 이곳은 1953년 부산역전 일대가 화재를 입기 전까지 서울에서 이전해온 중앙방송국이 있던 부산방송국 자리이다.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노천명은 이 건물 지하실에서 일 년 넘게 피난살이를 했다. 사돈집의 식객 신세는 면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대구의 최정희 곁으로 갈 기회도 없었던 것 같다.

33) 이곳은 노천명의 언니인 노기용의 시택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노기용의 남편이었던 최두환 변호사는 1947년 1월에 죽었다. 이승원, 『노천명: 고독과 자의식 그리고 절제의 미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108쪽.

34) 18번째 편지는 대구에 있는 최정희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기에 쓰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함께 첨부된 봉투는 조선일보사 활자가 인쇄된 해방 이전의 것이며, 발신지도 1949년까지 노천명이 서울에서 살았던 안국동 107-2로 적혀있다. 반대로, 16번째 편지는 내용상 『산호림』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던 1938년 초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첨부된 봉투는 수신인이 대구의 ‘영남일보사 창공구락부 최정희 여사’로 적혀있고, 발신지도 ‘부산시 대청동 1가7 중앙방송국’으로 적힌 한국전쟁기의 것이다. 편지지와 봉투가 잘못 짝지어진 경우로, 이 논문에서는 16번째와 18번째 편지의 봉투가 서로 바뀐 것으로 간주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영식 편, 위의 책, 169-171, 173-175쪽.

정희를 만나면 실컨마시고 실컨 밤을새며 얘기를 하고 또 실컨울것만  
같고—

또 이렇게 한번 풀어야만 내가 살것 같구려

기차를 잡아타고 내가 대구갈날이 올해 일력(日曆) 안에 있을테니 그  
리 아오

옛날이 그리워 죽겠오 그리고 옛날의 우리들이 그림구려<sup>35)</sup>

비슷하게 서한집에 21번째로 수록된 3월 10일자 편지에서도 최정희가 대구에서 낸 수필집 『사랑의 이력』(계몽사, 1952.2) 출간기념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기차도 놓치고 자동차도 구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정황이라든지, 해가 바뀌었음에도 점점 깊어만 가는 대구를 향한 그리움과 우울증이 짙게 나타나있다.

그런데 이 때 노천명이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대구’는 단순히 최정희가 있는 곳 이상으로서, 또한 대구의 최정희를 향한 갈망 역시 개인적인 그리움 이상으로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문구가 바로 “대구시 서문로 영남일보사 창공구락부 최정희 여사”라는 편지의 수신지이다.

주지하듯, 창공구락부는 공군 종군작가단의 별칭으로, 전시 대구에서 최정희가 가입해있던 문인 단체를 말한다. 최정희뿐 아니라, 대구로 피난한 대다수의 문인들은 그곳에 주둔해있던 육군, 공군 종군작가단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노천명이 이 편지를 보냈던 시기는 대구의 종군작가단원들이 문인극 <고향사람들>을 무대에 올리고(대구 자유극장, 1952.1.15), 잡지 『전선문학』 창간(1952.4)을 준비하는 등 한창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였다. 최정희는 「대구피난문단」에서 종군작가단을 중심으로 가족처럼 어울리고, 서로 의지했던 대구 피난 문인들의 풍경을 인상적으로 회고한 바 있다.<sup>36)</sup>

35) 김영식 편, 위의 책, 174쪽.

36)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01-106쪽.

추정컨대, 노천명에게 보낸 편지들에서도 최정희는 연극이니, 출판기념회니, 잡지 발간으로 분주한 문단 소식을 전했을 터이다. 그에 따라 창공구락부 앞으로 보낸 편지들에서 노천명 역시 장덕조나 최인욱, 구상 등 대구에 있는 동료들의 안부를 물으며 궁금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웬일인지 요새는 마음이 울적해 먼 산만 잘 바라보오 대구를 갔드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최인욱 씨는 좀 풀렸나 어찌되었나— 구상은 여전히 「일이 어디 될 것 같습니까」만 연발하겠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氣をつき」를 한 사람으로 구상을 다시 꾸두려 만들수가 있을까<sup>37)</sup>

대구에 있는 문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워하는 위의 대목을 포함해 노천명의 편지 곳곳에는 그들 사이에 속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갈망과 부러움,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소외의식, 그리고 간접적인 분노마저 표출되어 있다(“인제 그만 좀 밀려다니고 대구서는 집안에 좀 들앉아 있게”<sup>38)</sup>, “당신들은 무슨 그렇게 좋은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상하게 된 친구에게 편지 한 장을 안하고 인색한가”<sup>39)</sup>).

이 같은 처지는 일찍이 극예술연구회에 가입해 입센의 <유령>(경성공회당, 1934.6.23), 체홉의 <앵화원>(조선극장, 1934.11.30-12.2) 등 여러 문인극에 출연하며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히로인이자, 시집 『산호림』의 출판기념회를 경성호텔에서 화려하게 개최했던 과거의 노천명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 점에서 봤을 때, 노천명에게 대구는 최정희를 비롯해 과거 친밀했던 문인 동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전쟁부역자로 낙인찍히고 수감되기 전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장소, 다시 말해 「오산이었다」, 「문화인우대도 헛선전」에서 시종 소속감을 표하며, 그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37) 김영식 편, 위의 책, 178-179쪽.

38) 김영식 편, 위의 책, 180쪽.

39) 김영식 편, 위의 책, 175쪽.

“대한민국의 문인들”이 있는 장소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여러 편지에서 거듭 호소하였던 ‘대구에 가고 싶다’, ‘대구로 보내 달라’는 표현 역시 부산에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역작가로서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상징적인 장소상실의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장소를 되찾고 싶어 하는 강력한 갈망이 깃든 문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견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장르처럼 보이는 편지에서 노천명은, 그와 같은 편지 장르의 특성을 활용해 역으로 앞선 수기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문단에서의 배제 상황을 호소하고, 박탈된 문단 성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적인 메시지를 표출하는 전략을 취해 흥미롭다.

그러나 A급 전쟁부역자 출신의 전과자가 종군작가단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 즉 ‘대한민국의 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점은 남성작가의 경우와도 다르다. 단적으로 노천명처럼 부역문화인으로 몰려 수감되었던 박영준은 대구로 피난한 뒤 육군 정훈감실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선에 가장 많이 종군한 작가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비슷하게 부역문화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염상섭 역시 54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현역으로 해군에 입대한 뒤 명예롭게 제대하였다.

반면, 여성작가인 노천명에게 그와 같은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서한집에 22번째로 수록된 5월 25일자 편지를 보면, 노천명은 그토록 소원하던 대구에 들러 최정희와 동료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던 정황도 확인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희!

당신의 따뜻한 우정 고마웠오, 정말 나는 푸욱 쉬고 왔오. 마치 언 몸이 뜨끈뜨끈한 방엘 들어가 몸을 녹이고 온것같은 감이오. 부산엘 오니 몸은 다시 퐁퐁 얼어 들어오는것 같소. 당신과 둘이만 갖는시간이 적었

든것만이 유감이오.

어찌하야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오! (중략)

최인욱 씨가 오늘은 또 몇 차례나 호-키와 사진이 맞지 않았는지? 구상은 몇번이나 악을 악을 쓰고 또 대들었는지—

모두 더 그리워졌오. (중략)

나를 대구로 데려가주.

나는 아직 「금강」다방엘 안나갔오. 웅크리고 앉아서 직업적 원고를 써서 주는 이 순간 내 마음은 대구로 작구만 달린다. 한 사람도 그대 정말이지 한 사람도 내 맘을 붓뜨는 인간이 여기는 없다.<sup>40)</sup>

한편, 이 편지에서 노천명이 아직 나간 적이 없다고 언급했던 부산의 금강다방은 김동리의 「밀다원시대」(현대문학, 1955.4)에도 등장하듯이, 밀다원의 뒤를 이어 피난수도 부산에서 이른바 ‘중앙문단’의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장소여서 주목된다. 이곳의 핵심 멤버인 김동리, 조연현 등은 서울 수복 이후 부역문화인 심사를 담당했던 문총의 간부들이었던 만큼 문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던 노천명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은 대구의 종군작가단에 소속될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서한집에 23번째로 수록된, 부산에서 최정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에서 노천명은 속으로 가라앉고 메아리칠 뿐인 자신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북이 없습니다. 나팔이 없습니다. 동라(銅鑼)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 갈앉는 목소리가 내 안으로 돌아와서, 산울림 짓는 것입니다.”<sup>41)</sup> 문단 내 장소상실에 따른 말할 수 없음의 상황, 그럼에도 끈질기게 지속하는 발화 주체로서의 욕망을 함축한 표현으로 해석해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피난수도 부산 문단은 이른바 ‘중앙’을 자처했던 서울에서 피난 온 남성 작가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피난 작가들의 ‘보편적’ 장

40) 김영식 편, 위의 책, 181-182쪽.

41) 김영식 편, 위의 책, 183쪽.

소상실 상황 내지 ‘중앙’과 ‘지역’ 작가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논의되어왔다. 마찬가지로 피난지 대구 문단 역시 종군작가단에 소속되어 단체 활동을 했던 이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오곤 했다.

노천명의 편지들은 그와 같은 ‘중심’과 ‘집단’의 서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전시 부산과 대구 문단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존재, 동시에 그에 맞서 박탈된 문단 성원권을 되찾으려 하는 욕망을 표출한 존재의 글쓰기로서 재평가해볼 수 있다.

#### 4. 사회적 고립과 수감 트라우마를 기록한 수필

노천명은 생전에 두 권의 수필집을 출판하였다. 『산딸기』(정음사, 1948)와 『나의 생활백서』(대조사, 1954)가 그것으로, 전자는 해방 이전에 쓴 글들을 엮어 해방 후에 출판한 것이고, 후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쓴 글들과 전자의 일부를 재 수록해 출판한 것이다. 시 못지않게 많은 수필을 남긴 셈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노천명의 수필은 주변적 장르로 취급되며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주변성 덕에 문단문학 제도와 네트워크가 공고하게 작동하는 문학잡지나, 선집 같은 매체에서는 지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던 한국전쟁기의 노천명에게 수필은, 앞선 편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장르의 역할을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오늘날 젠더, 섹슈얼리티, 질병, 장애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수필 장르를 소수적 감정을 표출하는 새로운 미학적 양식으로 전유하는 것처럼 말이다.<sup>42)</sup>

이 같은 맥락에서 『나의 생활백서』는, 강인숙이 “한 여인이 작열하는

42) 오늘날 수필 장르에서의 소수적 감정 쓰기에 관해서는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쓰기」, 『현대문학의 연구』78,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9-520쪽.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대끼며 겪은 절박한 생활의 증언들”<sup>43)</sup>이라고 표현하였듯, 노천명의 피난살이의 구체적인 면면들과 수감 체험에서 오는 트라우마의 증상들까지 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부산 피난 시절에 쓴 수필들부터 살펴보자. 이 글들은 주로 출감 후 노천명이 일했던 방송국 안팎의 생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44)</sup> 이는 최정희를 위시한 문인 동료들을 수신자로 상정했던 편지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시 다른 문인들처럼 군에 입대하거나, 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노천명에게 방송국은 피난살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방송국 공보처라는 관청 촉탁직은 대외적으로 신원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드문 일자리이기도 했다. 일례로, 방송국 현장과 동료들의 모습을 담은 「첫 인상」에서 노천명은 자신의 일터를 “공산군을 무찌르는 싸움터로 통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여기가 대한 민국의 자유의 소리를 내보내는 곳인가 하면 새삼스레 존엄을 느낀다.”<sup>45)</sup>고 표현하였다.

물론 그와 같은 서술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쓰인 다수의 수필들에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던 방송국 안팎의 생활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를 바라보며」를 살펴보자. 이 글에는 헤진 다다미 녀 장이 깔린

43) 강인숙, 「노천명의 수필세계: 조출한 한 여인의 생활도」, 『수필문학』, 1978.5, 79쪽.

44) 해방 이전부터 여러 라디오 방송에 참여했던 노천명이 본격적으로 방송국 일을 시작했던 것은 해방 이후부터다. 신문에 남아있는 라디오 프로 편성표를 참고했을 때, 노천명은 1946-1947년까지 1년 넘게 ‘가정시간’(토요일, 오전 11시 45분)이라는 주부 대상의 오전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산 피난시절에 다시 해당 프로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미진에 따르면, ‘가정시간’ 프로에서 노천명은 가사에 필요한 상식들을 전달하는 한편, 여류명사 초청 강연도 진행하였다. 최미진,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9쪽.

45) 노천명, 「첫 인상」, 『사슴과 고독의 대화』, 서문당, 1973, 264쪽.

방송국 지하실의 비좁은 사조 방을 대여섯 명의 직원들과 함께 쓰는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퇴근한 저녁이면 장마당 같은 합숙소를 건디다 못해 각기병을 앓는 다리를 끌고 바깥으로 나서보지만, 피난민의 판잣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찬 부산 거리나,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해있는 바다 풍경은 좀처럼 그의 답답함을 해소해주지 못한다.<sup>46)</sup>

비슷한 심리는 한무숙의 「파편」(희망, 1951.7)이나, 황순원의 「곡예사」(문예, 1952.1) 등 전시 피난살이 체험이 투영된 여러 문인들의 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편지를 분석할 때도 강조하였듯, 이 시기 노천명의 처지는 그와 같은 여느 피난민들의 ‘보편적인’ 괴로움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글이 표제작인 『나의 생활백서』이다. “이렇게 사는것을 생활이라할수는 없는일이고 생존이라고나 해야 옳을것이다.”(79)라고 시작되는 이 글에는 방송국 합숙소 생활이 한층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곳에서 노천명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점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외부인에게 노출해야 하는 괴로움이었다. 노천명은 이를 “별을 서는것같은 일”(79)처럼 여겼다.

정말 내 이런모양을 남들에게 보이는 정신적 고통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내게는 큰것이였다.<sup>47)</sup>

남의꼴도 보기싫은것이 많거니와 또내꼴도 남에게 보이기 싫다. 부득의 맞날사람이있어 다방엘 나가있는 순간은 정말 별을 서는것같이 확확얼굴이 달아올랐다.<sup>48)</sup>

과연 이 시절 노천명의 글 전반에서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1953년 5월 17일자로

46) 노천명, 「바다를 바라보며」, 『나의 생활백서』, 대조사, 1954, 102-103쪽.

47) 노천명, 「나의 생활백서」, 위의 책, 81쪽.

48) 노천명, 위의 책, 84-85쪽.

쓰인 「원고부탁」에서 노천명은 조금이라도 서먹해진 사이에는 절대로 인사를 먼저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6·25이후의 나를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말하자면 나를 혹 무슨 나쁜 사람으로나 알고 속으로 좋아하지 안는다면 인사를 한뎀자 반가워 하지도 않으리라는 추측이 들때 나는 그만 인사가 하기 싫어지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107)는 문장에서 드러나듯, 그와 같은 증상은 공개재판을 받고 징역살이를 했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부역자의 주홍글씨가 새겨진 존재였던 노천명이 출감 후 대중들 앞에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방송국 일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경 바깥으로의 탈출은커녕(“미국으로 날라가는 꿈도 일본으로 건너가는 꿈도 내게는 멀다” 「나의 생활백서」, 85), 당장 가까운 대구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지였던 그는 방송국 지하실에서 꼼짝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나갈 도리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자신을 가리켜 그는 “날개두 다리두 찢라논 나비모양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81)고 절망적으로 표현하였다.

다행히 합숙소 생활을 일 년 넘게 지속한 끝에 노천명은 진명여고 선배의 도움으로 방송국 근처에 판잣집을 지을 수 있었고, 1952년 가을부터 1953년 6월까지 이곳에 홀로 기거하였다. “조그마한게 무슨 새(鳥)집 같다”(84)고 묘사되는 이 집은 기차 정거장이 가까워 기적소리가 크게 들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날아갈 것처럼 흔들리는 불품없는 판잣집이었지만, 이곳에서 노천명은 소원하던 자기만의 방에서 글 쓰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시절 그는 시중드는 계집아이조차 견디기 어려웠을 만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따라서 혼자 살게 된 뒤로는 방송국 일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더욱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켰다. 앞선 편지에서 살펴 보았듯, 이것은 불가피한 사회적 고립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전시 부산과 대구에서 발행된 문학잡지나 동인지, 문인들이 합동으로 펴낸 단행본 및 중군기 등에서 노천명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문인들이 피난 시절에 대한 회고록을 남겼지만, 그곳에서도 노천명의 흔적은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

그와 같은 처지는 환도 후 서울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노천명은 남들보다 이른 시기인 1953년 6월 8일 서울로 올라왔다. 환도를 전후한 서울의 풍경을 담은 「서울은 멀리서」, 「서울체류기」, 「서울에 와서」 등에는 과거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알만한 얼굴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낯선 서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도처에 빈집들이 널려 있고, 명동 한복판에 옥수수가 자라며, 중국 대사관 옆 빈터는 쭉대밭이 된 기이한 풍경들 속에서,<sup>49)</sup> 노천명은 “부산도 객지 서울도 객지”<sup>50)</sup>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승엘 와서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린 전세상의 기억에 남은 거리들을 어렵푸시 더듬는것이나 아닌가하는 착각”<sup>51)</sup>을 일으킬 만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재건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서울의 인구도 나날이 늘어가는 변화가 나타난다. 8월 25일자로 쓰인 「서울은 이러 난다」에 이르면, 무너져가던 집들과 건물들이 복구되고, 그 사이로 두부 장수, 새우젓 장수, 생선 장수 등이 거리를 활보하는 익숙한 서울의 일상이 회복되는 풍경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노천명은 전쟁 이전의 일상을 쉽게 회복할 수 없었다. 「문패」에서 드러나듯, 피난 갔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서울로 돌아오자, 이내 노천명의 집에 달린 문패를 보고 “아 여기가 노천명이 집이로군”하며 짓궂게 시비를 거는 일들이 일어난다. 노천명은 그것이 불쾌하여 아예 집에서 문패를 떼어버렸다고 했다.<sup>52)</sup>

49) 노천명, 「서울에 와서」, 『문예』, 1953.10, 118-119쪽.

50) 노천명, 「서울 체류기」, 위의 책, 23쪽.

51) 노천명, 「서울은 멀리서」, 위의 책, 110쪽.

52) 노천명, 「문패」, 김상배 편, 『꽃사슴』, 춘추각, 1984, 137-139쪽. 이 글은 이 책에

그런가 하면, 「소감」에는 길에서 본, 경찰이 연행해가는 사람을 향한 과도할만한 감정이입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이지만, 노천명은 그가 결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의 억울함을 증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사히 돌아온 그를 보고난 뒤에도 얼마나 욕을 보았느냐고 인사를 건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무고한 시민을 백주대로에서 범죄자 취급하며 끌고 간 경찰에 대해 깊은 분노감을 표한다.

죄도 없는사람을 고랑쇠를 채워가지고 대로가상엘 끌고 다닌데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만 할것같다. 고랑쇠를 차고가던 그광경만을 보고 그후문을 모르는 인사에게 있어서는 그중년신사는 영원히 죄인의 인상으로밖엔 남아있지 않을것이다.

그뿐이라 나도 이처럼 가슴이 찌르르한데 은행에서 밥을 버러먹던까 닭에 길거리로 그모양을하고 끌려다닌 자신의심경은 더 이룰데있을것인가. 그렇고보면 이런경우엔 어떤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씻어주어야만 할것이며 인권옹호도 여기 있어져야 할것이다.

과연 그분인에게는 어떤방식의 보상이 있었는지 모르되 내머리속에 인(印)찍힌 그날의 그음산한광경은 도무지 지우는 도리가 없다.<sup>53)</sup>

이것 역시 부역 이력으로 인한 수감 트라우마의 증상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유족과의 면담을 근거로 작성된 이어령의 작가 연구에 의하면, 당시 노천명은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고,<sup>54)</sup> 전후에도 깊은 피해심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sup>55)</sup>

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원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다.

53) 노천명, 「소감」, 『나의 생활백서』, 대조사, 1954, 121-122쪽.

54)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상, 동화출판공사, 1975, 142쪽.

55) 일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노천명에 의한 조연현 고소 사건을 들 수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일련의 취재 기사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대공론』(1954.6)에 허남휘라는 가명으로 이봉구가 부역문화인을 비방하는 글을 실었는데, 그 필자를 조연현으로 오해한 노천명과 조연현의 갈등이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노천명을 폭행한 조연현이 사과문을 쓰고,

그럼에도 그는 생전에 어떤 글에서도 전시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형무소에서 겪었던 국가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내밀한 편지나 일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별을 쳐다보며』에 실린 ‘영어에서’ 시편들에서도 수인 생활의 괴로움 정도만을 기술했을 뿐이다. 이제 그 흔적은 「소감」처럼 일견 수감 체험과 무관해 보이는 글들에서나마 희미하게 읽어볼 수 있다.

요컨대, 노천명의 수필집 『나의 생활백서』는 표면적으로는 피난살이와 방송국 생활 등의 신변잡기에 관해 기술한 주변적 장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노천명이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고립과 신체적, 정신적 질병, 그리고 지난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 속에서 전개되어나갔던 그의 말년의 삶의 기록을 읽어볼 수 있다.

##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글쓰기를 부역 여성작가로서의 사회적, 문단적 위치 및 그와 같은 위치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의 카르토그래피를 드러낸 시도로서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집들 및 연구에서 불철저하게 다루어져왔던 수기, 편지, 수필을 포괄하는 노천명의 산문을 연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한편, 그 장르별 글쓰기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존에는 소설로 분류되거나, 전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산이었다」와 「문화인우대도 헛선전」을 북한군 점령기 체험 수기라는 장르로 재분류해 논의하였다. 이를 공산주의 단체에 가담하였던

---

노천명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조연현의 회고록에서는 노천명의 히스테리로 인한 “만행”으로 서술되었지만, 노천명이 전후에도 얼마나 부역문화인 문제에 예민하였고, 고통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조연현, 위의 책, 139-141쪽.

부역 이력을 변호하거나,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텍스트로서 분석하였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남한에서 노천명이 처해있던 억압적인 증언 불능의 상황을 간접적, 은유적으로 증언하는 텍스트로서 재해석했다.

둘째, 전시에 쓰인 노천명의 편지 5통을 분석하였다. 이를 앞선 시기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문단에서의 배제 상황을 호소하고, 박탈된 문단성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글쓰기로 의미부여 하였다. 또한 공적 글쓰기 장에서의 입지가 극도로 축소되었던 노천명이 내밀한 장르인 편지를 활용해 사적 글쓰기와 공적 글쓰기의 경계를 허물면서 공적인 메시지를 발화하는 전략을 부각하였다.

셋째,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와 전후 서울에서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나의 생활백서』 등에 실린 수필들을 분석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피난살이와 방송국 생활 등의 신변잡기에 관해 기술한 주변적 장르처럼 보이는 이 글들을 중앙방송국 공보처 촉탁이라는 외부적 지위와 무관하게 죽기 직전까지 노천명의 삶에서 지속되었던 부역의 낙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신체적, 정신적 질병, 그리고 수감 트라우마를 표출한 기록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전쟁기 노천명의 글쓰기를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로서 논의해왔던 관점은 물론, 노천명을 전쟁과 이념 대립에 의해 희생된 존재로 규정하는 일방적인 희생양 담론으로부터 모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대신 이 논문은 이 시기 노천명이 여러 문학 장르를 활용해가며 자신이 처해있었던 억압과 배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측면 및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글쓰기 전략을 부각하였다.

물론 그 결과물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언제나 권력, 중심, 다수에 대해 비판적, 저항적 태도를 취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해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노천명의 목소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

이 동요하며, 줄타기하는 방식으로 발화되는 편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반공주의, 가부장제, 문단문학 제도가 팽배한 전후 한국문학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부역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과 서사를 가시화하는 측면에서 한국전쟁기 노천명 문학이 충분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바로 그 점에서 노천명 문학의 의의를 재평가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노천명, 『여성서간문독본』, 박문출판사, 1949[1955].

\_\_\_\_\_, 『별을 쳐다보며』, 희망출판사, 1953.

\_\_\_\_\_, 『나의 생활백서』, 대조사, 1954.

\_\_\_\_\_, 『사슴과 고독의 대화』, 서문당, 1973.

\_\_\_\_\_, 김상배 편, 『꽃사슴』, 춘추각, 1984.

김영식 편, 『작고문인 48인의 육필 서한집』, 민연, 2001.

김윤식·김현자·김옥순 편, 『노천명전집』1, 2, 솔출판사, 1997.

민윤기 편, 『노천명 전집 종결판』1, 2, 3, 스타북스, 2020.

오제도 편,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_\_\_\_\_, 『자유를 위하여』, 문예서림, 1951.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최정희, 『찬란한 대낮』, 문학과지성사, 1976.

평화문화사 편, 『한국대표작가수기전집』, 평화문화사, 1968.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문예』, 『현대문학』, 『새벽』, 『자유문학』, 『시문학』, 『문학사상』.

LG상남언론재단 편, 『6·25 전쟁기간 4대신문: 조선일보』, LG상남언론재단, 2009.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 2. 참고 논저

- 강인숙, 「노천명의 수필세계: 조출한 한 여인의 생활도」, 『수필문학』, 1978.5, 76-80쪽.
- 곽효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 애국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2-2, 한국근대문학회, 2011, 7-37쪽.
- 구명숙, 「한국전쟁기 노천명과 모운숙의 전쟁시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7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59-80쪽.
- 김삼주 편,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 김용희, 「노천명 시의 의미구조: 시집 『별을 쳐다보며』와 『사슴의 노래』를 중심으로」, 『교육논총』10,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271-300쪽.
-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노천명, 조경희, 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5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67-301쪽.
- 김윤식, 「예술의 방법론과 개인의 기질」, 『문학사상』, 1975.5, 308-315쪽.
-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쓰기」, 『현대문학의 연구』78,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7-550쪽.
- 김재용, 「찢겨진 시집과 친일 흔적 지우기: 두 가지의 노천명 시집 『창변』」, 『근대서지』12, 근대서지학회, 2015, 331-333쪽.
- 김진희, 「모운숙과 노천명 시에 나타난 ‘해방’과 ‘전쟁」, 『한국시학연구』 28, 한국시학회, 2010, 261-293쪽.
- 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이진경 역,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 박옥화, 「한국여류시인론: 노천명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6.
- 브라이도티, 로지,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 손미영, 「노천명 시 연구: 시집 『별을 쳐다보며』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6, 돈암어문학회, 1994, 161-177쪽.
- 손유경, 「‘여류’의 교류」, 『한국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385-419쪽.
- 신경림 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은: 노천명 시와 생애』, 지문사, 1981.
- 이경수, 「한국전쟁기 여성시에 나타난 사랑과 죄의식의 감정 구조」, 『상허학보』55, 상허학회, 2019, 137-187쪽.
- 이승원, 『노천명: 고독과 자의식 그리고 절제의 미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상, 동화출판공사, 1975.
- 이희경, 「노천명 시의 개작과정: 결정본 확정을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어문학』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543-560쪽.
- 정주아, 「난민의 언어적 조건과 ‘증인’의 시선: 월남작가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48, 상허학회, 2016, 9-48쪽.
- 최미진,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23-155쪽.

<Abstract>

A Study on Noh Cheon Myeong's Prose  
during the Korean War :  
Cartography and Writing Strategies in Noh's Memoirs,  
Letters, and Essays

Na, Bo-Ryeong\*

This paper re-examined Noh Cheon Myeong's works written during the Korean War as an attempt to reveal the "cartography" of the power relations that defined her social and literary position as a "female writer and traitor."

To this end, this study newly incorporated the entire prose texts by Noh, including her memoirs, letters, and essays, which had not been thoroughly covered by existing collections and studies, as research materials. While highlighting Noh's tendency to use various literary genres to actively disclose the oppression and exclusion she experience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t writing strategies she used by genre.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war experience and narratives of a female writer and traitor, a topic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postwar Korean literature dominated by anti-communism, patriarchy, and literary circles and reevaluated the significance of Noh Cheon Myeong's literary works.

---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 words: Noh Cheon Myeong, Korean War, War Traitor Writer, War Memoir, Refuge Capital Busan, Refuge Daegu, Choi Jung-Heui, *Looking at the Stars* (*Byeoreul Chyeodabomyeo*), *A White Paper on My Life* (*Naui Saenghwal Baekseo*), *Letter Writing Handbook for Ladies* (*Yeoseong Seoganmun Dokbon*).

■ 논문접수 : 2023년 03월 24일

■ 심사완료 : 2023년 04월 12일

■ 게재확정 : 2023년 04월 18일

